



만물각

제주

신비로운 습지여행 즐거움이 주렁주렁~



꼬마 해설사와 트래킹



재활용 공방 체험



스톤양말화분 체험



천연염색 체험

‘꽃자왈 동백동산’ 난대상록활엽수 천연림 랍사르 습지·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 지정 우거진 숲에 희귀 동식물 서식 ‘힐링 동산’ 트래킹·생태건강학교 등 탐방객 행사 다양

생명이 시작되는 곳, 습지를 품은 마을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. 선흘1리에는 원시 숲소리가 느껴지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, 화산섬 제주가 만 들어놓은 생태계의 보 고인 꽃자왈 동백동산 이 있다. 용암이 식어서 굳 은 크고 작은 바위덩 이과 나무, 덩굴식물 등이 뒤섞여 있는 꽃 자왈지대 숲인 동백동 산은 난대상록활엽수 의 천연림으로 학술적 가 치가 높아 지방기념물(제 10호)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. 2011년 동백동산이 랍사르 습지로 지정 되고 2014년에는 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로 지정됐다.

‘꽃’은 수풀을 의미하는 제주어고 ‘자왈’은 열기설기 엉성한 돌무더기로 이루어진 지형 위에 나무와 덩굴 등이 엉켜져 있는 곳을 뜻 한다. ‘꽃’과 ‘자왈’이 합쳐진 ‘꽃자왈’은 엉성한 돌무더기 지형에 나무와 덩굴 등으로 이루어 진 숲을 의미한다. 돌무더기인 꽃자왈 지대는 많은 비가 내려 도 물이 고이지 않고 그대로 땅속으로 스며들 어 지하수 함양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제 주의 허파로 불린다. 이곳 동백동산에는 다른 지역의 꽃자왈과 달 리 소규모 습지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특징이 다. 대표적인 습지로 ‘만물각’이 있다.

동백동산의 대표 습지로 선흘1리와 동백동산 명의 상징이자 이 지역 주민들의 생명수였다. 울창한 숲길이 끝나고 하늘이 탁 트이며 나 타나는 만물각은 탐방객들에게 시원함과 평안 함을 선사한다.

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이라는 뜻으 로 ‘만물’과 깎트머리를 이르는 제주어 ‘깍’이 합쳐진 이름으로 ‘만 곳 깎트머리에 있는 물’ 이라는 뜻이다.

큰 습지는 마소를 먹고 빨래도 하던 곳이고, 작은 습지는 목욕을 하던 곳이라고 한다.

1971년 이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 지 주민들은 만물각을 비롯 동백동산에 산재 한 습지에서 식수를 구했다.

◇생명의 보고, 동백동산

동백동산은 다른 꽃자왈처럼 빗물이 바위 틈으로 스며들고, 인근에는 사철 마르지 않은 습지가 있어, 빛 한줄기 내리쬐지 않는 울창한 산림에 일정하게 습도가 유지돼 다양한 동식 물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.

제주도농농과 북방산 개구리, 참개구리, 청 개구리, 맹꽁이 등 다양한 양서류가 서식하 고, 이들을 먹이원으로 하는 누룩뱀과 도마 뱀, 줄장지뱀, 실뱀, 유허목이와 대륙유허목 이, 쇠살모사 등의 파충류도 이 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.

동백동산 꽃자왈에는 동백나무 뿐 아니라 종가사나무, 구실갯바나무 등 도토리열매를 맺는 나무들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. 이 때문에 제주휘파람새, 작박구리, 흰배지빠귀, 호랑지 빠귀, 동박새, 박새, 방울새, 비둘기, 여치, 원 양 등도 이 곳에 동지를 틀어 생활하고 있다.

특히 휘귀 조류인 팔색조와 삼광조는 물론 빼꾸기, 두견 등도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.

양서류와 파충류, 그리고 다양한 조류를 먹 이로 하는 벌매, 붉은배새매, 황조롱이 등 맹 금류 의 힘찬 날갯짓도 쉽게 볼 수 있다.

제주를 대표하는 노루에게도 동백동산은 포 근한 안식처가 되고 있다.

◇기승 아픈 역사의 현장 동백동산

동백동산은 피와 한의 아픈 역사도 간직하 고 있다. 제주근대사의 가장 큰 아픔인 제주 4 ·3사건의 학살 현장이다.

동백동산의 도돌굴은 4·3사건 당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숨어 지낼 수 있도록 은신처가 됐 다. 하지만 1948년 11월 23일 굴에 피신했던 한 주민이 물을 길러 나갔다가 수색대에 발각 되면서 도돌굴에 숨어 있던 주민 25명 중 18명 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, 나머지는 모진 고문 을 당했다.

결국 다른 굴에 은신해 있던 150여 명 중 부 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40여 명이 억울하게 희생됐다.

◇힐링과 휴식의 동백동산

생명의 보고이자 제주 4·3의 아픈 역사를 간 직한 동백동산을 둘러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은 1시간 남짓.

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고, 겨울에 는 따스함을 선사하는 동백동산 꽃자왈은 바 뵈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힐링과 휴 식의 공간으로 제격이다.

해마다 가을이면 이곳 동백동산에서 동백동 산의 모든 생명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 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뜻 깊은 행사가 열린다.

바로 선흘곳 랍사르습지 생태문화체험 행 사. 선흘곳 동백동산위원회(선흘리·제주신 보)가 주최·주관하고,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 도가 후원하고 있다.

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동백동 산 일대에서 동백동산 숲길 트래킹을 비롯해 환경 관련 워크숍, 천연염색 체험, 전통음식 체험, 생태건강학교 및 다양한 공연행사가 열 린다.

울해도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 동백동산의 매력 을 느끼고 동백동산이 내어주는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것이다.

/제주일보·조문욱 기자

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
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
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

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

특수가발 별매(원터치) 테잎 X 핀 X
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

H.M사 동급제품 130만원 **59만원** ~

062 673 5858 (모발모발) 매주 화요일 휴무
일요일 정상 영업

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(대광여고 옆)




